

## 세계의 양계

이 계 조  
<천호 부회장 · 사장>

『우리는 좀 더  
세계를 알아야 겠다』  
이번 호부터 세계 양계계의  
이모 저모를 직접 현  
지에 계신분이나 다녀 오  
신 분들에게 들어보기로 하였다.

나는 1970년 2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미국 미조리주 캔사스시에서 열리는 가금평가회(Poultry Fact Finding Conference)에 참석하기 위하여 웰프원종농장의 초청으로 지난 1970년 1월 30일 출국하였다.

가금평가회는 미국내에서 있는 모든 가금대회 중 둘째번 크기의 것인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매년 이곳에서 열리고 있고 1970년이 41회째이다.

규모가 제일 큰 것은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조지아주 이탈란타에서 있는 것이고 원래는 그 모임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출국 수속의 지연으로 캔사스시로 바꾼 것이다. 미국이나 또 다른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문헌이나 팜플렛 · 화보 등을 통하여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가슴이 벅차도록 흐뭇했다.

강카레이지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시카고를 거쳐 미니아 폴리스에 내렸다. 웰프원종농장에서 환영 나온 사람의 안내로 3시간 30분 후에 아이오아주 벤크로프트에 있는 웰프농장에 닿았다.

웰프농장의 부사장이며 실권자인 도날드 웰프(1968년 11월에 내한한 일이 있었다)씨와 외국부

장인 덕손헤어씨가 주로 영접과 안내를 맡았다.

웰프농장에서 만 6일동안 있었는데 그 중에는 회의를 2차에 걸쳐 5시간 정도 하였고 1일은 그곳에서 약 300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백신 베이커이며 세계적인 첨가제 · 소독약 등을 생산하는 샬스버리 제약회사를 구경했으며 나머지 시간은 다섯개로 분리된 농장과 사료공장 등을 두루 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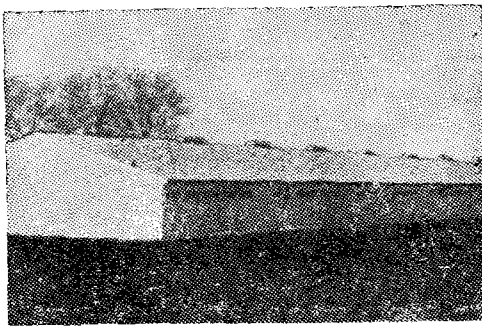
한국에서 육종이 얼마만큼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 역산을 하여 말하자면 첫째 그네들이 하고 있는 닭의 능력 검정소를 보았다. 부로일러 능력 검정소만 해도 폭 40피트에 길이 600피트(약 600자)에 3층 계사인데 여기는 전부 보일러 시스템이 되어 있고 에레베이터도 시설되어 있었다. 산란계 능력 검정소는 이것보다 규모가 큰 4층짜리였다. 부로일러의 경우 여러 계종이 타회사 제품과 같이 자라고 있는데 각대를 달아 혼사하는 경우 감별하여 따로 따로 시험하는 경우 · 무감별로 하는 경우 등 수백가지의 시험구를 가지고 웰프제품과 같이 능력을 검정하여 자기 제품이 우수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 국내 시장이나 국제 시장에 출하한다. 산란

계의 경우도 같다. 사료 시험까지 접친다. 3 수 케이지에 9수까지 넣고 시험한다.

여러가지 사료 시험은 크고 작은 닭 계종을 따로 시험하는 경우나 동일하게 하는 경우 등 막대한 비용을 들여 능력 조사를 한다.

육종을 하기 위한 기초계들은 한마리 한마리의 능력을 조사한다. 실용계의 경우 50,000수에 1인 또는 10,000수에 1인이 필요한데 육종을 하기 위하여는 전자계산기가 하는 일 이외에도 종사원이 박사급들을 제외하고 130여명이 동원된다. 기초계의 능력을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중요시 되고 또 그들 한마리 한마리가 전부 이름까지 붙여 있는데 형체는 난장이 종을 비롯하여 체중이 15파운드까지 나가는 대종도 있다. 색깔을 보더라도 수십가지나 된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닭들이 알을 잘 낳는다 또는 잘 안 낳는다. 병에 약하다 또는 강하다 등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이 닭들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의 노력은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능력이 보장되어야만 판매를 하고 있으니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에는 무언가 타자기 전에 반성하여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계사 구조에 있어서 특이한 것이 한가지 있었다.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새롭기는 하지만 이 계사들은(제4농장) 계분을 2~3년에 한번 치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에 큰 탱크가 있고 약물을 부어 두어 계분 냄새도 나지 않고 계분을 풀 때에는 인분치는 차같은 것이 호스를 대고 뽑아 내는데 1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모두가 편리하고 능률이



<46×612尺의 부로일러종계장>

나도록 되어 있지만 그네들의 정신 자세와 일하는 태도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좋겠다.

신념을 가지고 정직히 생각하는 정신 자세와 분(分)을 어기지 않는 약속,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놀 때는 노는 생활 습성은 놀랄만 하다. 희의를 하는 것도 그렇다. 시간이 되면 다음 기회로 넘어가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종계 부화장의 변천사를 물었다. 1930년대에 1만 5천~1만 8천개의 부화장이 있었고 1950년도의 1만 1천 중에 육종업자가 3,000이었던 것이 1969년에는 부화장이 1,500~1,800이며 육종업자는 20~25개로 줄었고 성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산란계 7개 부로일러 5개 정도라고 하며 앞으로 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본에도 비슷한 것은 있다. 나고야에 들렀을 때에 웰프라인 대리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애지현 지구가 일본 전체의 양계 규모에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쟁 전에 218개의 부화장이 지금은 70개가 남았는데 가동을 하고 있는 업자는 40개이고 1주에 암병아리 10,000수 이상 출하하는 업자는 다섯 뿐이라고 한다. 대단의 경우도 비슷하여 지는 것 같다. 금년도의 불경기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것 같은데 금년이 고비로 도산되는 업자가 많아지지 않나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질서가 잠혀 있고 사양 규모가 대형화 되어 가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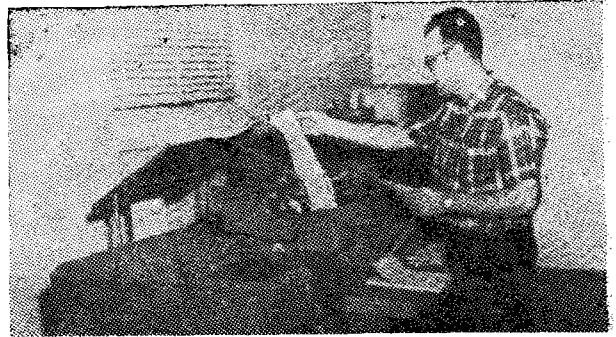
한국이나 홍콩의 경우 이것과는 정반대인데 이것도 자본가들의 투자가 많아지고 경제질서가 잠혀 가는 날 똑같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양계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자가 **균일하게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다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대형화 되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업자는 마음 놓고 확장할 수 있으며 수입면으로 본다면 한국도 현재의 현재 경기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 한가지 한국의 좋은 점을 소개하자면 가금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또 외국에서 유명한 전문가들, 또 경험이 많은 업자들이 현신 내지 적극적으로 강사회 등을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려고 노력만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한국에서 양계를 하는데 가장 유리한 점의 하나이기도 하다. 선진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켄사스시에서 있는 가끔평가회에서 개최한 강연회에는 아침 8시부터 4일간 계속 입추 여지 없이 대만원을 이룬다.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세계를 주름잡는 업자들인데도 성의껏 진지하게 듣는 모습을 볼 때 부러운 감마저 든다. 한국의 경우 내가 제일인 양 하는 업자가 너무 많다. 생활에 계획이 없어서 항상 바쁘다. 그런 점 등으로 좋은 기회가 많이 놓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업자들 개개인의 큰 손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백혈병으로 인하여 손해를 많이 본다면 그것도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본다. 백혈병 예방에 대한 강연을 한국에서도 벌써부터 해왔는데 몰라서 손해를 봤다면 그것도 큰 손해가 아니겠는가? 이런 고집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비단 한국 뿐은 아닌 것 같다. 일본에서도 고집 센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이 골탕을 먹기 전에는 이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백혈병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 하는지 산이나 능선에다가 터를 닦고 육추사를 지은 것이 여기 저기 눈에 띄는데 별장 같은 기분도 든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여 한 세대가 병아리 입추와 동시에 60일 동안을 함께 생활하며 뉴켄셀 백신도 미국에서 수입해다 쓰는데 그것은 T.C.N.D. 백신이라고 하는 폐지 신장으로 만든 정제된 백신이며 이것을 씹으므로 하여 개란성(介卵性: 종란을 통해 병아리에 전염되는 것) 병균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50일령부터의 정기적인 구충은 백혈병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C.R.D.·코라이자·류코싸이토준병 등의 병발은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특히 C.R.D.의 발생은 자주 일어나고 있으므로 초생추 때부터 정기적으로 타이란(타이로신 항생제의 상품명)을 투여하거나 주사하고 있다.

이 약은 미국이나 일본·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C.R.D.(민성 호흡기병) 예방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약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C.R.D. 급속



〈전자계산기에 의한 산란능력검정〉

응집 반응액을 사용하여 C.R.D. 표준 종계를 검색해 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C.R.D.의 피해 뿐만 아니라, 백혈병의 병발까지 막을 수 있으므로 한국의 제약업계에서도 이 약의 수입 공급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펠트농장의 사료 공장도 보았다. 초추사료라고 하여 1주일간 먹이는 사료인데 그것은 좁쌀알만한 톨로 되어 있고 그것을 먹이면 위를 건강하게 하며, 초생추 때 발생하는 소화불량증(추백리에 걸린 것 같이 흰 설사를 하며 항문이 막히는 증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기타 사료는 펠릿트나 크럼블로 되어 있는데 제조하기 전에 단미별 영양 분석과 제조 후에 성분 분석은 반드시 하여 출하하며 출하된 사료는 상당한 기간을 쌓아 두어도 부패되지 않도록 제조되어 있다.

나는 그네들이 얼마나 알려고 노력했으며 또 하려고 노력하는가를 보고 놀랐다.

우리로 하루 빨리 세계를 알아야 되겠고 연구 노력한다면 6.25로 인한 후유증과 남북이 갈려 있는 헨디캡 등으로 뒤떨어진 양계업계지만 일본이나 대만 등에 수준은 그네들보다 4~5년 고생을 덜하고 똑같은 위치에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인데 이렇게 되려면 양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외국을 보고 온 입장에서 양계인의 한사람으로 제언하는 것이다.